

# 과학과 예술은 한 길



李根伸  
(서양화가·강남대 강사)

요즘 나는 기분이 좋을 때면 밥도 거르고 며칠씩 화실에 틀어박혀 캔버스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할 때는 두문불출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럴 때면 아내가 T.V.를 크게 틀고 건강프로를 보라며 성화인데 그럴수록 담배를 더욱 피워대기 마련이니 백년해로(百年偕老)는 물건너간 얘기인듯 하다. 이렇게 기분따라 사는 과학알레르기성 화가에게 과학기술을 논하라니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발상인 것 같다.

나는 언젠가부터 '과학'이나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대하면 빙하(氷河)속으로 빠져드는듯 몸과 마음이 얼어붙곤 한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물리, 화학, 생물과목을 연상시키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딱딱하기만 했던 수업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빠져들게 하기 마련이고 '과학적'이라는 용어는 구세대인 나의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짓누르기 때문이다.

## 과학은 차갑고 예술은 따스한가

'과학은 차갑고 예술은 따스한 것'이라는 대립관념이 내 의식을 지배한 것은 부모님이 부여한 선천적인 기질때문이었지만 내가 자라온 환경의 후천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와 같이 그림을 삶 그 자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오히려 그림을 망치게 하는 걸림돌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림쟁이는 문득 떠오르는 직관(直觀)을 생명으로 여기며 치장하지 않은 원시적 세계를 동경하는지 모르겠다.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보는 방법을 물어보자. 심산유곡의 비탈길을 홀로 걷는데 이름 모를 들꽃 한송이가 돌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외롭게 걷는 나그네가 꽃장수라고 할 때 그의 눈에는 이 꽃이 잘 채집하여 가게에 가져가면 큰 돈이 될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희귀한 꽃이니 꽃잎의 구조를 따져볼 것이다.

전자는 언제인가 시들어버릴 꽃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고 후자는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된 사고에 말려든 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화가는 어떻게 볼까? 아마도 실연한 사람이면 '가련한 꽃'이라고 말할 것이고 애인이 있는 사람이면 '화사한 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들 화가의 말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강변이다. 동일한 꽃이 어떻게 가련하다가 갑자기 화사해질 수 있겠나.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와 예술적인 관조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진다면 또 골치가 아파지니 그만두기로 하자.

## 과학적 사고에 어느새 발목잡혀

그런데 이렇게 골치 아픈 과학에서 벗어나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는 자유를 만끽하는데도 어느 틈엔가 과학의 위력 속에 말려들고 있으니 묘한 일이다. 더욱이 그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수록 과학적인 사고에 발목을 잡히게 되니 아무리 싫어도 이제는 도리없이 타협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예술이란 특수한 분야지만  
시대와 환경에서 고립되어  
존립할 수는 없다.  
과학은 가정을 전제하고  
예술은 무를 바탕으로 삼는다.  
이 두길은 다같이 꿈을 먹고  
살아가는 외로운 길인데  
남녀가 짝이 되어 살아가듯  
차가운듯한 과학적인 父性과  
따스한 예술적인 母性이  
서로 보완해 준다면  
이 두길은 밝게 빛나는  
한길로 합쳐질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科學技術)'이라는 용어와 '미술(美術)'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자리잡고 있는 '술(術)'이라는 글자가 나를 괴롭힌다. 프랑스에서는 그림을 배우는 미술학교를 에콜 드 보자르(Ecole de Beaux Art)라 한다. '보자르'라는 말중 '아르(Art)'는 그리스시대에 예술의 일반적인 속성을 일컫는 '테크네(txchne)'와 같은 뜻의 기술(技術)을 뜻한다. 그러므로 과학을 실현하는 기술과 같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조형예술(造形藝術)을 '미술(美術)'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지만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1910년대 이후로서 그전에는 '서화(書畵)'라고 하였다.

서화라 하면 글씨와 그림을 지칭하지만 이 단어는 군자(君子)가 갖추어야 할 세가지 덕목(德目)인 시(詩), 서(書), 화(畵)인 삼절(三絶)을 함축하는 용어로서 그 속에는 미술이 인격도야를 위한 도덕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은 선(善)적인 가치와 동일시되어 기술적인 측면이 천시되는 숭문천기(崇文賤技)의 사상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윤리적인 의미 속에 구속되던 서화가 기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자율성을 지닌 미술로 독립되어 불려진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스스로의 발상이 아니라 근대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인들에 의해서이다.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식민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이런 경우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니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위력에 주눅이 들 뿐이다.

과학적인 사고가 미술창작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소중히 여기는 동양적인 예술관에서

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서양 근대미술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낭만주의나 20세기 초두 세계대전의 혼미 속에서 태동한 다다이즘(Dadaism = 부정사상)과 그것의 맥을 이은 초현실주의나 표현주의 미술들은 다같이 반이성(反理性)을 제창한 과학혐오의 사조들이었다. 우리만 해도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넘어섰을 때 이념(理念)이라든가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 오랫동안 허탈감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1950년대에 그림을 시작한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학혐오증에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란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미술의 역사도 어느 시대에 감성(感性)이 균립하면 다음에는 이성(理性)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전후(戰後)에 그렇게도 백안시되던 과학이나 기계문명이 슬그머니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 나와 같은 비과학적인 그림쟁이도 자가용이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며 카폰이나 핸드폰이 없으면 외딴 섬에 고립된 기분이 든다.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를 후기산업시대나 정보화시대나 하며 P.C나 인터넷을 다룰줄 모르면 '컴맹'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변했는데 미술은 어떠하겠는가.

### 과학과 예술은 父性과 母性의 한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변덕이는 과학적인 사고 덕분에 자연을 사진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원근법에 의지해 오던 화안(畵眼)이 이제는 도수가 떨어진 안경이 되어버렸고 현미경이나 투시경으로 보여지는 분석적인 세계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좁은 골

목이나 실내를 벗어나서 대지를 화폭으로 삼으려는 환경미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예 붓이나 물감이라는 전통적인 매재(媒材)를 버리고 기계와 기술이 표현을 대신하도록 하는 비디오아트나 컴퓨터아트가 대중의 감성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예술이란 특수한 분야이지만 시대와 환경에서 고립되어 존립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술도 오늘날의 사회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 즉 3M과 3P의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3M인 기계(Mechanism), 돈(Mammonism), 정보(Mass-Media)는 우리를 선진의 문턱까지 이끌어 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가 참다운 행복일까? 선진(先進)이라면 세계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돌아보고 그 곳에 사는 인간을 살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직도 지구는 인구팽창(Population)과 그로 인한 빈곤(Poverty)과 공해(Pollution)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를 모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명과 창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을 찾는 길은 바로 과학과 예술일 것이다.

과학은 가정(假定)을 전제하고 예술은 무(無)를 바탕으로 삼는다. 두길은 다같이 꿈을 먹고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인데 차가운듯한 과학적인 부성(父性)과 따스한 예술적인 모성(母性)이 서로를 보완해 준다면 이 두길은 밝게 빛나는 한길로 합쳐질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화가들도 이제는 컴퓨터부터 배우자. 그대신 과학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화랑을 찾아 그림과 대화를 나눠보자. ㉔